* 기원전 2333년 [단군왕검](https://ko.wikipedia.org/wiki/%EB%8B%A8%EA%B5%B0%EC%99%95%EA%B2%80)

에 의해 고조선이 건국됐다. 근세조선과 구분하기 위해 고조선이라 부른다.

* 다음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신화다. 옛날, [환인](https://ko.wikipedia.org/wiki/%ED%99%98%EC%9D%B8)의 서자(庶子) [환웅](https://ko.wikipedia.org/wiki/%ED%99%98%EC%9B%85)이 인간세계를 다스리기를 원하였다. 그러자 아버지 환인이 인간세계를 굽어보니 삼위태백(三危太伯)이 인간을 유익하게 하기(弘益人間)에 적합한 곳으로 여겨지므로, 아들 환웅에게 천부인 3개를 주며 환웅으로 하여금 그곳으로 가 인간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자 환웅이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를 비롯한 3,000명의 수하를 이끌고 태백산 정상 신단수(神壇樹) 아래로 내려와 그곳을 신시라 칭하며 다스리니 환웅천왕(桓雄天王)이라 불렸다. 그는 곡(穀, 곡식), 명(命, 목숨), 병(病, 질병), 형(刑, 징벌), 선함(善), 악함(惡) 등 360가지 일을 맡아 인간세계를 다스렸다.

그러자 같은 동굴에 사는 곰과 호랑이 한 마리가 환웅을 찾아와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늘 간청해왔다. 이들의 간청을 들은 환웅이 이들에게 신령(神靈)한 쑥 1자루와 마늘 20쪽을 주며 이것만 먹고 100일간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곰은 인내하고 근신하여 삼칠일(3×7, 21일) 만에 인간 여자로 변하였으나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 사람이 되지 못했다. 웅녀는 자신과 혼인하는 사람이 없자 신단수 아래에서 환웅에게 아이 갖기를 기원했다. 그러자 환웅은 잠시 인간으로 변해 웅녀와 혼인하였다. 그 후 웅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단군왕검이다. 왕검은 당고(唐高, 당고는 요임금을 말함) 즉위 50년 후인 경인년(요임금이 즉위한 때는 무진년으로 그 50년 후는 정사년임. 따라서 기록의 오류로 보임)에 평양에 도읍하고 국호를 조선이라 했다. 훗날 도읍지를 백악산〔白岳山, 또는 궁홀산(弓忽山), 금미달(今彌達)이라고도 함〕 아래 아사달로 옮겼다. 단군은 이후 1,500년간 조선을 다스리고 주나라 무왕(武王, 삼국유사에는 고려 혜종의 이름인 武 대신 虎로 표기됨) 즉위년에 기자를 조선 왕으로 봉하고 자신은 장당경(藏唐京)으로 옮겨갔다가 뒷날 아사달로 돌아와 산신이 되었는데 그때 단군의 나이 1,908세였다.

* 단군신화를 통해 고조선이 농경생활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란 점, 홍익인간의 이념, 토테미즘을 믿는 사회, 애니미즘, 계급의 분화 등을 알 수 있다.
* 8조법에는 중국의 한서에 기록된 3개 조항만이 전해져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2.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3.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되 이를 면하려면 50만전을 내야 한다.

*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대 경부터 청동기문화를 배경으로 철기 문화를 수용하면서 요하, 대동강, 만주 일대에서 성장했고 춘추전국의 여러 나라와도 활발히 교류했다.

.